

우크라이나 동부...주민들 “분리·독립 찬성”

도네츠크·루간스크주 투표 89~98% 압도적

독립공화국 창설 임박...러시아 병합은 미지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한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11일(현지시간)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 주도도 실시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도네츠크주는 89%, 루간스크주는 94~98%의 압도적 다수가 독립에 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두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은 이같은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분리주의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은 우선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독립공화국 창설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투표의 질문 자체가 ‘국가적 독립 선언을 지지하는가’였던 만큼 당연한 수순이다. 도네츠크 분리주의 세력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의장 데니스 푸실린은 주민투표의 결과로 “첫 주민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다.

루간스크주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공화국 정부 구성과 현

분리주의 민병대를 주축으로 한 자체 군대 창설 등의 일정을 마치면 다른 동남부 지역들과 연대해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더 광범위한 독립국가 건설을 시도할 수도 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정부 공동의장 미로슬라프 루덴코는 앞서 도네츠크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결정하면 루간스크주, 하리코프주, 오데사주, 니콜라예프스크주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다른 지역들과 연합해 독립국 ‘노보로시아’(Newrosia)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보로시아는 18세기 말 러시아 제국에 정복되어 1917년 사회주의 혁명 이전까지도 통치하에 있었던 흑해와 아조프해 북쪽 연안 지역을 일컫는 용어로 최근들어 분리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이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포괄한다. 역사적 인연으로 친러시아적 전통이 강한 이 지역은 분리주의자들이 구상하는 독립국가의 영토 경계와도 일치한다.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 이어 다른 동남부 지역이 분리·독립 주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민투표 결과



민투표를 강행하면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는 구상이다. 동부 지역이 있따라 독립을 선언하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도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분리주의 세력은 대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분리주의자들은 개별 독립 공화국 차원에서, 아니면 동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국가 ‘노보로시아’를 창설한 뒤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연방제를 제안하거나 크림공화국처럼 아예 러시아로의 편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연방제는 동남부 지역이

행정과 예산 집행 등에서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과 연방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일부 분리주의자들에게 의해 줄곧 제안돼 왔다.

크렘린궁은 12일 “개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일단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를 승인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압도적 다수 주민이 독립을 지지했다는 결과를 진서방 성향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서방국과의 협상 카드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 지지 주민들이 대부분 친러시아 세력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크림처럼 러시아로 완전히 병합할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반발과 서방의 추가 제재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같은 선택은 푸틴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연방제 관철 등을 통해 서방권으로 편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묶어 두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목표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美교민들 “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라”

11일자 뉴욕타임스에 정부 비판 광고 게재 與 “외국서도 선동, 정치적 악용한다” 주장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이 11일(현지시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진실을 밝혀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냈다.

일요일자 19면 전체에 실린 이 광고는 “300명 이상이 여객선에 갇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면서 부채로 ‘왜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라고 적었다.

광고는 정부가 적절한 비상대응책을 취하는데 실패했으며, 관련 부처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미국 해군과 민간 잠수 전문가들의 지원 의사마저 거절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 노력은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 부재, 무능, 직무태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고는 정부의 주류 언론에 대한 검열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보도되지 않고 있으며, 주류 언론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없는 할머니를 위로는 하는 장면 등을 언론의 잘못된 보도의 예로 들었다.

이러한 광고는 여당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담은 소문을 퍼

뜨리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고는 한국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적었다.

이번 광고는 미국 내 한인 교포들이 미주생량 정보교환 사이트인 ‘미씨USA’를 통해 모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목표액이 5만8000달러였으나 지난 9일 현재 16만439달러가 모였으며 참여자는 4129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12일 세월호 참사를 악용한 일부 세력의 정치 선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거절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 노력은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 부재, 무능, 직무태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외국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선동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보면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일부 해외 일부 교포들이 우리의 비극적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든다”면서 “국회가 선동하거나 정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국가 대개조라는 명제 속에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카니발로 지진 피해 잊어요” 10일(현지시간)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의 연례 카니발에서 공연에 나선 여성 출연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카니발은 매년 3월에 열리는데 올해는 지진이 발생해 연기됐다. /연합뉴스

“아들은 마마보이로 키워라”

美코넬드 드렉슬러 교수 “반듯하고 성공 가능성 커”

나이 들어서도 엄마를 찾는 ‘마마보이’가 ‘보통 남자’보다 더 반듯하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페기 드렉슬러(심리학) 코넬드 의대 교수는 11일 미국 어머니의 날을 맞아 CNN에 ‘당신의 아들을 마마보이로 키워라’는 제목의 기고를 올렸다.

여성인 드렉슬러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마마보이는 엄마의 품에서 자라난 탓에 의지력이 부족한 남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 적응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있고 공격성향이 덜하다는 게 드렉슬러 교수의 말이다.

2010년 영국 리딩대가 어린이 6천명에 대한 69건의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엄마와 관계가 끈끈한 아이, 특히 남자 아이일수록 성장 과정에서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발달 저널도 2011년 보고서에서 모자 관계의 질이 아들의 도덕성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마마보이는 또한 성인이 되면 남과 사귀지 않고 일을 해내려는 경향이 강하고 대인관계도 더 쉽게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렉슬러 교수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미국 최고의 농구스타인 르브론 제임스의 출세를 마마보이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편견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편모 밑에서 자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마마보이는 강하고 자주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아빠 없는 아들 키우기’의 저자로 유명한 드렉슬러 교수는 편모보다 편모에서 자란 자녀가 탈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적다는 보고서도 낸 바 있다.

미국에선 남자 청소년의 20%가량이 편모와 살고 있다. /연합뉴스

두암신탁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두암신탁
본점: 263-0136 (말바루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청단지점: 572-9511 (송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정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홍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근무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남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